


■ 논문 초록 ■

우리가 본고에서 의도하는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이룩한 반종교개혁과 좌경화 종교개혁과 차별화에서 발전한 루터를 시발점으로 하는 츠빙글리, 부처, 갈뱅 등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주도된 종교개혁 운동이다. 우리가 선택한 현대 선교에 대한 정의는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관점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에큐메니칼 관점을 통합한 균형 잡힌 성경적 선교 개념이다.

종교개혁의 선교 사상과 선교 활동을 중심으로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논쟁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루터는 물론 갈뱅에게 나타난 선교 사상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더구나 개신교 최초의 선교의 요람과 근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처의 선교 사상과 활동은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선교관을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부처의 선교 사상을 옛 계약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 개념을 중심으로 주로 부처의 대표적 성경 주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부처에게서 구속사적인 큰 틀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사상이 강하게 발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큰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계셨고, 청사진대로 실천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 계약 속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은 믿음의 아버지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계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선택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다. 이미 구약 시대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이방인들이 제한적으로 참여하였지만, 그 폭은 점점 더 넓어져서 모든 민족을 향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도들에 의해서 전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미리 보셨을지라도, 그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주신 경계선 안에서 활동하셨다. 부처는 아브라함의 참 씨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될 하나님 나라를 성경 주석을 토대로 끊임없이 선교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마르틴 부처, 종교개혁, 선교, 하나님 나라, 구속사, 보편적, 이방인

I. 서론

국내에서는 개혁파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Martin Bucer, 1491-1551)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¹⁾ 부처의 선교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전무하다. 그는 ‘선교에 대한 가장 생생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종교개혁자’이다.²⁾ 그는 ‘선교의 사람’으로 불리며 선교와 관련해서도 ‘개신교주의의 요람’으로 불린다.

우리는 본고에서 ‘종교개혁’과 ‘현대 선교’ 개념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종교개혁자들의 선교 사상과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부처의 선교 사상이 매우 두드러짐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부처의 선교 사상을 옛 계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개념을 중심으로 그의 대표적인 주석서를 통해서 밝힌 후, 결론을 끝으로 본고가 끝날 것이다.

A. ‘종교개혁’과 ‘현대 선교’ 개념에 대한 간단한 정의

논자에게 주어진 ‘부처의 종교개혁과 선교’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종교개혁’(the Reformation)과 ‘선교’(mission)에 대한 정의

1) 최윤배, “마르틴 부처(Martin Bucer, 1491-1551)의 해석학 소고: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편), 『장신논단』 제22집 (2004), 173; Yoon-Bae Choi, *De verhouding tussen pneumatologie bij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jn* (Leiden: Uitgeverij J.J. Groen en Zoon, 1996).

2) Werner Raupp(Hrgs.), *Mission in Quellentexten: Von der Reformation bis zur Weltmissionskonferenz 1910* (Fulda: Fuldaer Verlagsanstalt HmbH, 1990), S. 22: “Der Reformator mit lebendigsten Missionsinteresse ist Martin Bucer(1491-1551).”

를 먼저 내려야 될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에는 5가지 종류의 종교개혁, 즉 루터(M. Luther)가 독일에서 성공하여 스칸디나비아 3국(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으로 확산된 루터 계통의 종교개혁, 스위스 취리히(H. Zwingli), 베른(B. Haller), 노이샤텔(G. Farel), 바젤(J. Ökolampadius) 및 제네바(J. Calvin), 스트라스부르(M. Bucer) 등에서 일어난 개혁주의 계통의 종교개혁,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 계통의 종교개혁도 있었고, 토마스 뮌처나 재세레파 등의 좌경화 계통의 종교개혁과 로마 가톨릭교회 측의 ‘반(反)종교개혁’(the Counter-Reformation) 운동도 있었다.³⁾ 그러나 우리가 본고에서 칭하는 ‘종교개혁’은 ‘반종교개혁’과 차별화되고, 좌경화 종교개혁 운동과 구별되는 종교개혁으로서 마르틴 루터를 시발점으로 여러 ‘종교개혁자들’(the Reformers)을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을 가리키고자 한다.⁴⁾

현대에서 ‘선교’(mission)란 무엇인가? 선교에 대한 정의가 (선교) 신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존 스토틀(John R.W. Stott)는 선교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두 가지 극단의 견해를 소개하고 비판한 후, 성경 주석을 토대로 두 극단을 종합하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배타적인 복음주의자로서의 전통적인 견해와 살롬의 건설로서의 현재의 에큐메니칼 견해로부터 보다 좋은 방법 즉 교회의 선교를 정의하며, 하나님 백성의 복음적·사회적 의무를 서로 연관 짓는 보다 공정하고 성경적인 방법이 있는지 묻게 된다.”⁵⁾ 스토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the Great Commission, 至上

3) 최윤배 공저(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개혁신학과 교육시리즈 (1):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42-43.

4) Werner Raupp(Hrgs.), 위의 글 S. 13-33에서 Raupp는 선교 사상이 담겨 있는 중요한 1차 자료(Quellentexten)를 중심으로 루터, 츠빙글리, 부처, 멜란히톤, 갈뱅의 선교 사상을 기술하고 있다.

5) John R.W.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서정운 역, 『현대의 기독교 선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25.

命) 또는 ‘위임 명령’을 복음 전도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포함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자 한다. “나는 오늘날에는 다르게 표현하고자 한다. 그 명령이 예수께서 이미 명령한(마 28:20) 모든 것을 회심자들에게 가르치는 의무를 포함하며, 예수께서 명령한 것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제 보다 분명히 아는 것은 명령의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 명령 그 자체가 예수의 말씀을 곡해하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한다면, 복음 전도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⁶⁾

스토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과 ‘위대한 계명’(誠命, the Great Command)을 상호 밀접하게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의 두 가지 교훈이 있음을 알게 된다. 즉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과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위대한 위임이 그것이다.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를 사랑하는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위대한 위임은 위대한 계명을 설명하지도, 고갈시키지도, 대신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하는 일은 이웃 사랑과 이웃 봉사의 요구에 대하여 새롭고 긴급한 기독교의 차원을 부가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수의 복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에게서 멀리한다면 그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복음 전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이웃은 그의 영혼만을 사랑해야 하는 육체 없는 영혼이 아니며, 육체의 보살핌만을 요구하는 영혼 없는 육체도 아니며, 사회로부터 고립된 영혼의 존재도 아니다.”⁷⁾

스토트에 의하면, 선교에는 복음 전도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6) J.R.W. Stott, 위의 책, 29.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양자의 관계에서 사회적 책임은 ‘복음 전도의 수단’이나 ‘복음 전도의 현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동반자’(p. 36)이다.⁸⁾ 스토틀트는 ‘선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선교 개념 속에서 극단적인 선교 개념을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경적 선교 이해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보다 넓은 의미의 선교의 개념을 세상에서 복음 전도와 사회 행동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의 봉사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개념은 우리 구주의 이 세상에서의 선교 모델을 따라 우리에게 부과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회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의 막대한 힘과 그리스도의 명령의 철저한 요구에 맞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 ‘선교’라는 단어는 이제까지 말한 대로 철저하게 함축적인 말로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게 하신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데, 왜냐하면 둘은 더 궁핍한 인간을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분명한 표현이기 때문이다.”⁹⁾

현대 ‘선교’에 대한 이해는 매우 포괄적이며 통합적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와 『하나님 나라와 선교』¹⁰⁾ 및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와 『복음과 선교』라는 책명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가 있다.¹¹⁾ 한국일

7) J.R.W. Stott, 위의 책, pp. 39-40, cf. David J. Bosch, *Witness to the World: The Christian Miss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전재욱 옮김, 『세계를 향한 증거: 선교의 신학적 이해』(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3), 270: “오�히려 이 두 요소는 동시에 함께 움직이는 가위의 두 날과 같고, 이 두 날은 코이노니아에 의하여 서로 붙어있는 것이다.”

8) J.R.W. Stott, 위의 책, 33-36.

9) J.R.W. Stott, 위의 책, 47-48.

10) 서정은 명예총장 은퇴기념 출판위원회(편),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서정은 명예총장 은퇴기념 출판위원회(편), 『하나님 나라와 선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제시하는 “선교의 의미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선교는 전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경계선을 넘어서 증거하고 실현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¹²⁾ 그는 “선교의 근본적인 주체는 하나님이며 교회는 참여적 주체로서 하나님의 선교 파트너”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을 전제하면서도, 선교를 위한 교회의 존재론적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선교 활동에서 교회의 역할도 매우 강조하고 있다.¹³⁾ 김영동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선교의 중요한 두 부분임을 확인”하면서 전도와 사회 책임, 영혼과 육체라는 이원론적 사고를 극복하고 있는 ‘포괄적인’(comprehensive) 그리고 ‘통전적인’(integral) 선교 이해와 ‘통전적 선교 방법’(holistic approach)을 오늘의 선교 현장에서 적절한 해결책의 하나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¹⁴⁾

B. 참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가?¹⁵⁾

종교개혁과 선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

-
- 11) 세계선교연구회(엠통),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광순 박사 회갑기념문집』(서울: 미선아카데미, 2006); 세계선교연구회(엠통), 『복음과 선교: 이광순 박사 회갑기념문집』(서울: 미선아카데미, 2006).
- 12) 한국일, 『세계를 품는 선교』(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116-17.
- 13) 한국일, 위의 책, 84.
- 14) 김영동, 『교회를 살리는 선교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pp. 128-29, cf. Lalsangkima Pachuau(Ed.), *Ecumenical Missiology: Contemporary Trends, Issues and Themes* (Bangalore: The United Theological College, National Printing Press, 2002), 273-74: “‘Mission’ carries a holistic understanding.”
- 15) D.H.W. Gensichen, “Really Were Reformers Not Interested in Mission?,” *History’s Lessons for Tomorrow’s Missions* (Geneva: WSCF, 1960). 본 장의 제목은 앞의 논문 제목으로부터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이다.

을 것이다. 우리는 종교개혁에서 선교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종교개혁에서 선교 활동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근대 또는 현대 선교적 관점에서 종교개혁에 나타난 선교 사상과 선교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타당한가? 참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선교에 관심만을 가졌는가, 아니면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실천도 하였는가?

변창욱에 의하면, 16세기 말 로마 가톨릭교회의 예수회 변증신학자 벨라르민(Robert Bellarmine, 1542-1621)은 선교를 이방인 해외 선교에만 제한하고, 참 교회의 표지를 선교로 정의하여, 종교개혁 측에는 선교 활동이 없으므로 참 교회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¹⁶⁾ 또한 19세기 말엽 독일 개신교 선교학의 아버지 구스타프 바르넵(Gustav Warneck, 1834-1910)은 벨라르민의 주장에 동의하여,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외지로 나아가는 '선교 활동'(missionary action)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선교 사상'(idea of missions)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종교개혁자들의 선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벨라르민의 주장을 널리 알리는 첫 개신교 학자가 되었다.¹⁷⁾

그러나 20세기 초엽 이후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영·미권 선교신학자들은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하여 바르넵의 주장을 뒤엎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주장한 변창욱은 종교개혁의 선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첫째, 종교개혁과 선교는 16세기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해외 선교는 거의 불가능했다. 둘째, 벨라르민이 그랬듯이, 종교개혁자들의 선교를 단순히 이방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관점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종교개혁자들에게는 국내의 개혁 사역이 곧 선교 사역이었다. 셋째, 루터와 칼뱅의 작품과 사역 속에서 발견되는 선교적 통찰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 종교개혁자들의 선

16) 변창욱, “종교개혁과 부흥”, 장로회신학대학교 연구지원처(편), 『2007년도 제5회 종교개혁기념 학술강좌: 주제: 개혁교회의 부흥』(팜플릿, 2007. 10. 25), 50, cf. 33-51.

17) 변창욱, 위의 글, pp. 35-36.

교 사상과 선교 활동을 구별해야 하는데, 선교 활동이 없다는 근거로 선교 사상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다.¹⁸⁾ 변창욱은 16세기 종교개혁 상황 속에서 루터와 칼뱅이 유럽 내에서 성취했던 교회 개혁은 물론 특히 비기독교인인 유대인과 모슬렘에 대한 선교 사상과 선교 활동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¹⁹⁾

김성현은 ‘종교개혁’을 영적으로 죽어 있던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부흥 운동’인 동시에, 순전한 복음을 온 유럽에 전파하여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거대한 선교 운동’(Un grand mouvement missionnaire)이라고 전제한 뒤,²⁰⁾ 칼뱅의 선교 사상과 선교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여 부정적으로 이해되었던 칼뱅의 선교관을 긍정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²¹⁾

최정만은 일반적으로 칼뱅의 선교 사상에 내려진 네 가지 평가(부정적 견해, 적극적·긍정적 견해, 애매모호한 요소가 있다는 견해, 후대 선교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소개한 뒤,²²⁾ 칼뱅의 설교, 성경 주석, 그의 주저 『기독교강요』 등을 분석하고 칼뱅의 선교 사상의 적극적 측면을 심도 있게 보여 주었다.²³⁾ 선교 개념, 선교적 심정, 선교 중심적 의지, 선교에 대한 책임 의식, 선교 아이디어, 선교적 요소 등 다양한 각도에서 칼뱅의 다양한 작품을 분석하고 논증한 최정만은 칼뱅의 선교 사상을 “개혁주의 선교신학의 수원지”로 명명했다.²⁴⁾ 왜냐하면 칼뱅의 작품 도처에 적극적 선교 사상이 발 견될 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열정도 짙게 깔려 있으며, 브라질에 직접 선

18) 변창욱, 위의 글, 36-37.

19) 변창욱, 위의 글, 37-49.

20) 김성현, “종교개혁 운동에 나타난 선교와 부흥”,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2007 국제선교학술대회: 주제: 종교개혁과 선교』(팜플릿, 2007. 9. 17-19), 40.

21) 김성현, 위의 글, 41-60.

22) 최정만, 『칼뱅의 선교 사상』(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99-119.

23) 최정만, 위의 책, 121-212.

24) 최정만, 위의 책, 213.

교사를 파송하는 “현대적 파송 선교의 개념에 입각한 선교 활동”도 발견되며, 칼뱅의 사상은 후기 칼빈주의자들로 하여금 ‘타문화 선교’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²⁵⁾ 칼뱅은 이미 『기독교강요』 초판(1536)에서 교회의 권징과 선교와 관련하여 로마 가톨릭교회가 사용하는 무력적 방법과는 정반대로 위로와 가르침으로, 자비와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상대함으로써 그들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그런 사람들(출교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터키인들과 사라센인들, 그 밖에 종교의 적들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로 대하여야겠다. 그들을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우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즉 그들로 하여금 불과 물과 다른 일상 요소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들의 인간성을 부인하고, 그들을 칼과 무기로 옥박지르는 방법 등이다.”²⁶⁾

II. 하나님 나라 구현으로서 부처의 선교 이해

A. 개혁교회 최초의 ‘선교 요람’과 ‘선교의 사람’으로서 부처의 선교

프로테스탄티즘의 역사에서 다복(多福)하고도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던 것 중 모든 것이 마르틴 부처의 요람(‘an seiner Wiege’)에서 발견된다는 아우구스트 랑(August Lang)의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니다.²⁷⁾ 이미 종교개혁 초기부터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 부처의 가슴 속을 가득 채운 것은 바

25) 최정만, 위의 책, 213-17.

26) John Calvin(Trans. Ford Lewis Battles),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양낙홍 옮김, 『기독교강요』(1536)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146.

로 선교 사상이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과 주장은 종교개혁자들이 선교에 대한 어떤 통찰도 가지지 않았다고 인구에 회자되는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종교개혁자들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확히 참된 선교 활동을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순전한 선교 사상과 고유한 선교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었다는 것이다.²⁸⁾ 신학적 근본 사고가 종교개혁자의 활동과 심지어 그들의 사고의 틀이 선교를 지향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는 것이다.²⁹⁾ 이 같은 주장은 종교개혁자, 특히 부처와 관련해서는 그 증거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일단 받아들여져 고착화된 종교개혁의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곤 했다.³⁰⁾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미 1885년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알프레드 에리흐존(Alfred Eichson)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바로 “1538년의 선교 적절성에 대한 호소”(Ein Aufruf zur Missionsthätigkeit im Jahre 1538)였다.³¹⁾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개되었다. 부처는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목회’(waren Seelsorge)에 대한 사역에서 전적으로 간과된 사역이 바로 비기독교 백성들을 향한 참된 선교라

27) August Lang, Der Evangelienkommentar Martin Butzer(Scientia Verlag: Aalen, 1972/Leipzig, 1900), S. 9: “Er füllt in dieser Hinsicht so zu sagen eine Lucke unter den Reformatoren aus, zum Zeichen, dass nichts von allem, was wahrhaft segnenreich und wirkungskrätig in die Geschichte des Protestantismus eingegriffen hat, an seiner Wiege, unter den Mächten, die ihn schufen, völlig gefehlt hat.”

28) P. Maurus Galm, Das Erwachen des Missionsgedankens im Protestantismus der Niederlands, 1915, 7ff.

29) G. Warneck, Abrisz einer Geschichte der protest. Missionen von der Reformation bis auf die Gegenwart bv. 1913, 10e Auflage, Einleitung.

30) A. Goslinga, “Hervorming en Zending,” Standaard (13 Jan 1920); Th. Muller, “Ons Suriname” (Oct. 1931), 103-04.

31) Protestantischen Kirchenzeitung (1885), S. 600ss, cf. A. Lang, 위의 글, S. 180, Anm. 3, S. 312.

는 사실에 종교개혁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했다는 것이다.³²⁾ 그 후에 쾨스틀린(H.A. Köstlin)도 부처의 선교 사상에 대해 동일한 평가를 내렸다. 『참된 목회학』(Von der waren Seelsorge, 1538) 속에서 부처의 선교에 대한 사상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처의 작품을 폭 넓게 직접 인용하면서 부처의 선교에 대해 논했는데, 특별히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 부처의 다음의 질문이 언급된 부분에 주의를 기울였다. “정부들(국가들)도 얼마나 이방 민족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었던가?”³³⁾

통찰에 대한 가능한 변화를 보여 주는 유일한 경우가 바르넵의 몇 가지 언급에서 발견된다. 그의 결론은 칼카르(C.H. Kalkar)의 사상과 일치하는 데,³⁴⁾ 바르넵의 일반적 결론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위 ‘종교개혁적 선교’(reformatorische Sendung)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웃에 있는 타락한 기독교 교회의 순수화의 차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선교에 대하여 기록했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루터가 말했던 내용, “너무나도 많은 터키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또는 나쁜 교리와 해악한 삶을 가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 발견된다.”는 정신 속에서 설명했기 때문이다.³⁵⁾

32) Martin Bucer, “Von der waren Seelsorge und dem rechten Hirtendienst, wie derselbuge in der Kirchen Christi bestellt und verrichtet werden solle durch Martin Bucer”(1538), Robert Stupperich(Hrs.), Martin Buceri Opera Omnia Series I: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Band 7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4), S. 90-1245.

33) H.A. Köstlin, Die Lehre von der Seelsorge nach evangelische Grundsätzen, 1895, S. 60-71.

34) C.H. Kalkar, Geschichte der Christliche Mission unter den Heiden, 1e Dl, 1879, S. 8ss.

35) G. Warneck, 위의 책, bv. 4e Auflage 1898, Einleitung, S. 11; P.R.E.³. Band XIII 1903, S. 127-28; Allgem. Miss. Zeitschrift, Zehnter Band 1883, Reformation und Heidenmission, S. 4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벡은 츠빙글리와 함께 부처를 예외로 돌린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순전한 선교를 위해 보다 유리한 관점을 개방시켰던 선교 이론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브라우어(A.M. Brouwer)는 부처의 종교개혁 활동, 가령 헤센(Hessen)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 활동에만 한정하여 좁은 의미에서 부처의 선교 사상을 이해했다.³⁶⁾ 그러나 바르벡은 이보다 넓은 의미에서 부처의 선교 사상을 이해했는데, 츠빙글리와 함께 부처 역시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의무를 아주 분명하게 옹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벡은 동일한 맥락에서 다음의 내용을 첨가했다. 두 종교개혁자들은 가장 먼 거리에서 “유리한 방향에 서 있는 그들의 선교 이론”(mit ihrer missionsgünstigeren Theorie)을 실천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³⁷⁾

어떤 경우에도 바르벡은 에리흐존과 퀸스틀린과 전적으로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스쳐 지나가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사람들은 보다 심도 있는 선교적 통찰을 탐구하는 가운데, 비로소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관점을 발견할 필요성을 가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요람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중 부처에게서 예외적으로 선교에 대한 ‘유일한 독창적 관점’(einige originale Anschauungen)이 이미 그 같은 초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만날 수가 있었다.³⁸⁾

바르벡이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처의 선교 사상을 총체적으로 한 곳에 모을 수 있다. 부처는 그의 『복음서 주석』과 『로마서 주석』에서 반복적으로 선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종교

36) A.M. Brouwer, *De Zending in Nederl. O. en West Indië Toelichting op de zendingskaart*, 1930, 9.

37) P.R.E.³. Band XIII, 129.

38) G. Warneck, *Abrisz*(1898), S. 18; Drews, “Die Anschauungen reformatorischer Theologen über die Heidenmission,” in *Zeitschrift für praktische Theologie* (1897), S. 204, 206, 314.

개혁적 기독교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선교하기 위한 부처의 뜨거운 사랑이 그의 가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다. 제한적 의미에서 이 같은 선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천해야 하는 활동도 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 땅 끝까지 수행해야 할 선교에 대한 가장 풍성한 동기가 부처에게서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불꽃 튀기는 많은 선교 사상이 그의 탁월한 작품 곳곳에 흩어져 있다.

부처의 선교 사상을 요약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다. 비록 순전한 선교가 종교개혁 시대에 아직도 완전히 계승되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종교개혁 초기부터 이미 순전한 선교 사역을 위한 하나의 음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렸는가를 배워서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아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다. 오늘 그렇게도 강력하게 확장된 개신교 선교 사역은 종교개혁의 다른 모든 핵심 사상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개신교 선교 사역은 종교개혁의 탄생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근거하여 우리는 갈름(P. Maurus Galm)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정면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갈름에 의하면, 비교적 후기에 발생한 개신교의 선교 사상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영향'(Katholische Einflüsse)이며, 특별히 로마 가톨릭교회의 선교 활동과 선교 문헌으로 소급된다는 것이다.³⁹⁾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개신교 선교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영향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실천된 개신교 자체의 선교 활동이 역사적으로 성장해 왔는데,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요구 속에 있는 개신교 자체의 신앙관(론)이다. 로마 가톨릭교회가 항상 에라스무스(D. Erasmus, 1466-1536) 때를 초기 선교의 시발점으로 간주하고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에라스무스는 1535년의 작품("Ecclesiastes sive de ratione concionandi")에서 비기독교적 백성들을 회개시켜야만 한다는 웅변적이면서도 감동적인

39) P. Maurus Galm, 위의 책, Vorwort, S. 3.

증언을 남겼다. 칼카르(C.H. Kalkar)는 1879년 그의 시대에 이미 에라스무스의 탁월성을 깨우쳐 주면서, 에라스무스야말로 종교개혁 이전 초기 시대로부터 선교의 가치를 인정한 ‘첫 음성’(die erste Stimme)으로 간주했다.⁴⁰⁾

1535년보다도 더 일찍이 정상에 도달했던 부처의 선교 사상, 더구나 에라스무스가 언급한 종교개혁적이지 않은 내용보다 더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부처의 선교 사상을 만약 에라스무스가 인식하였다면, 칼카르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적이지 않았지만, 참된 종교개혁적 신학자로서의 부처의 전 생애와 작품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의 선교 사상이 반향(反響)되어 울려 퍼진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특정한 사상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일련의 순서로 정렬된 내용을 보여 줄 것이다. 부처는 다양한 작품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⁴¹⁾

B. 옛 계약(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

만약 우리가 부처의 선교 사상과 관계하여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어 나타난다는 부처의 증언에 대한 매우 성숙한 열매를 발견할 경우, 우리는 부처의 선교관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매우 폭넓게 이해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시기에 시작한 이래 발전하여 완성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는 하나님 나라를 보편적인 지평에서 이해하고 있다.

40) C.H. Kalkar, 위의 책, S. 53-58; Karel Kutzlaf, *Geschiedenis der Uitbreiding van Christus' Koninkrijk op aarde*, 1e dl, pp. 21-29.

41) 우리는 부처의 『복음서 주석』을 E(1527, 1530, 1536), 『로마서 주석』을 Rom.(1536), 『시편 주석』을 Ps.(1529/1554), 『올바른 목회학』을 Von der waren Seelsorge(1538),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하여』를 De Regno Christi(1557/1577)로 표기하기로 한다.

그러나 도르너(A. Dorner)는 이 ‘가치 있는 사람’(an sich verdienstvolle Mann) 속에는 ‘기독교의 보편적 특징’(auf den universalen Zug des Christentums)에 대한 관점이 없다고 부처를 부당하게 평가했다.⁴²⁾

이같이 보다 더 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처의 선교 정신에 대하여 언급할 때, 우리는 순전히 교리적인 입장에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비록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확대에 대한 부처의 말이 비기독교적 백성에게만 특별히 국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종교개혁자 부처의 모든 말은 순전히 선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발전의 진행과 관계하여 부처의 부름, 전적으로 그의 정신 자세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큰 직선과 틀 속에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철저히 진행된 연구의 결론은 부처로부터 선교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부처는 종교개혁 진영 안에서 선교 사상과 선교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을 항상 깊은 묵상 속에서 반복하며 성서에 근거하여 실행했던 처음 사람들 중 한 사람, 아마도 첫 사람일 것이다.⁴³⁾

우리는 옛 계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시대에서, 종교개혁 시대에서 부처가 이해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선교와 관련지어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논문 분량상의 이유로 옛 계약에 나타난 부처의 하나님 나라 사상만을 그의 선교 사상의 맥락에서 다룰 것이다. 부처는 그의 선교 사상과 함께 복음에 대한 첫 약속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전 인류를 위해 예정된 구원, 세상에서 범죄 직후 예언되었던 구원에 대한 공적 선포를 듣고 있다.⁴⁴⁾ 이를 통해서 유일하고도 참

42) A. Dorner, Grundriss der Dogmengeschichte, 1899, S. 440, Anm. 1.

43) 부처의 금언은 “sequi scripturam”이었다. E(1530), Matth. fol. 67b; E(1536), 171.

44) Rom.(1536), fol. 50a v.: “praedicatio ista publica salutis, universitati hominum communicanda.”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배는 처음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떠남으로써 사탄의 힘에 굴복하였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시켜 두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선택된 자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다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복(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⁴⁵⁾ 이러한 구원의 실현을 가져오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기초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가족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전 인류로부터 분리시키셨다. 그 후 이 아브라함의 씨 속에서 에서가 버림당한 후에, 야곱과 함께 백성 이스라엘로 확산되게 되었다.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반면, 다른 모든 세계를 자신의 전능한 통치와 주권 가운데 묶어서 보존하셨다.⁴⁶⁾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측면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다. 아브라함은 많은 백성들의 아버지로 선택되었다. 아브라함의 시대 이전 역사하셨던 성령의 경륜에 따라 그는 처음에는 그 자신의 종족에게, 그 후에 그로부터 나온 참 씨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신앙의 의(義), 즉 참 종교와 참 종교 안에 있는 영원하고도 복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분배해야만 했다. 아직도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 안에서 나중에 그가 할례를 통해서 인친바 된 복으로 칭의되었다.

그 결과 할례자들이나 무할례자들 모두가 신앙의 길에서만 영생의 약속을 유산으로 이어받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신앙을

45) Ps., 146 v.(Ps, 22:28,29).

46) Ps., 380.

따라 심판받아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신앙은 할례자들을 뛰어넘어 무할례자들을 칭의받게 하여, 세계 민족들이 지금은 단번에 작은 민족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게 되었다. 아브라함도 역시 자신의 신앙의 의(義) 안에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증언하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폭넓은 범위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취급하면서 부처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서 세계의 유업(haereditas mundi)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이해된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깨닫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백성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⁴⁷⁾ 오직 신앙만이 칭의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인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칭의하는 신앙으로 세계 가운데 나아가야만 했던 것이다. ‘신앙에서 신앙으로’라는 말씀에 대한 부처 자신의 고유한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으로부터 모든 민족들의 신앙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⁴⁸⁾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지식과 참된 예배를 전세계에 매개시켜야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갖는 보편적인 의미를 뜻한다.⁴⁹⁾ 이집트로부터 가나안으로의 이스라엘의 부름과 선지자 요나의 부르심 같은 전형적인 형태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세계 만방(은누리)이다.⁵⁰⁾

아브라함의 참된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보물은 율법서와 예언서 속에서 이해되었으며, 유대인의 지극히 작은 숫자에게 제한되었다. 유대인 중에 경건한 사람들에 따라, 거룩하고도

47) Rom.(1536), fol. 219b-fol. 224b, cf. fol. 210a.

48) Rom.(1536), fol. 80a-80b.

49) Rom.(1536), fol. 33b.

50) Rom.(1536), fol. 197b.

사랑을 입은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고, 심지어 극소수의 이방인(*paucos aliquos*)도 구약 시대에 유대인과 하나가 되었으며, 이 보물은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구원될 전세계에게 하나님의 때에 분배될 것이다.⁵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배분의 순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것이다. 반면 이방인이 많은 숫자 가운데(*in massa*) 잠정적으로 제외되었다가, 그 후에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그 반대가 될 것이다. 신명기 32장 21절과 이사야 65장 1-3절에 의하면, 유대인이 일시적으로 제외될 것이며, 이방인이 구원을 향유할 것이다.⁵²⁾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와 전(全) 이스라엘이 동일한 구원 안에서 영화될 것이다.⁵³⁾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이 이미 세계 안에서 시작되었고, 느리게 (*sensim*) 이 시대에 이방 세계 가운데 이 선한 미래에 대한 기다림이 준비되었다.⁵⁴⁾ 그 후에 이방인을 유대인 안에서 강력했던 은혜 계약의 파트너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이 시작되었다.⁵⁵⁾ 그러므로 거룩한 선지자들은 이것을 그렇게도 강력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예는 이사야 49장 22절, 이사야 54장 1-5절, 이사야 60장 9-12절이다. 선지자들은 세계 만방(은누리)의 하나님(*Deus universae terrae*)으로서의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모든 족속들과 민족들에게(*ad gentes et ad populos*) 하나님 나라의 확산에 관하여 그리고 민족들의 총체(*copiae gentum*)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로 접붙임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선지자들의 증언은 신명기 4장 6절과 시편 78편 안에서

51) Rom.(1536), fol. 146b, cf. E(1530), Matth. fol. 89a; E(1536), 225; E(1530), Johs. fol. 12a; E(1536), 590; Rom.(1536), fol. 441b.

52) Rom.(1536), fol. 424a-424b.

53) Rom.(1536), fol. 432a, cf. fol. 441b, 442a, fol. 374-453b.

54) Rom.(1536), fol. 159b.

55) Rom.(1536), fol. 441b.

도 나타난다. 요약하자면 구약은 민족들에 대한 부름(*gentium vocatio*)으로 가득 차 있다.⁵⁶⁾

마침내 아브라함의 참된 씨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거룩한 가족의 머리아신(*germanum semen Abrahæ et totius familie sanctæ caput*)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에 오실 날이 다가왔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하면 세계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유산을 가져오셨다. 부처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편 37편 11, 29, 34절과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제시한다.⁵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행동적으로 행하신 것은 아니다.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 나라 선포 속에서 자신을 제한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길 위에 다니셨지만, 마지막 임무를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다.⁵⁸⁾

위의 내용은 다음의 사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순회하실 때, 구세주 되신 그를 믿는 이방인의 신앙에 대한 각 진술은 그를 통해서 곧바로(*mox*) 실현될 놀랄 만한 사실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인 세계로부터 그를 받아들이는 이방인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놀랄 만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였다.⁵⁹⁾ 이 경우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 되었다.⁶⁰⁾

비로소 자신의 대속적 죽음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승귀(고양)가 일어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이 제거되고, 전세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구축되는 시대를 그리스도는 대망하셨다.⁶¹⁾

56) Rom.(1536), fol. 146b; fol. 50a, 50b; fol. 295b, cf. fol. 502b, 503a.

57) Rom.(1536), fol. 242b.

58) E(1530), Matth. fol. 102b; E(1536), 259.

59) E(1530), Matth. fol. 86a, cf. 89a, 89b; 100a, 100b; 219a; E(1536), 217, cf. 225f, 245, 253, 545; cf. Rom.(1536), fol. 193b.

60) Rom.(1536), fol. 206b.

61) E(1530), Johs. fol. 11b; E(1536), 590; Rom.(1536), fol. 294b.

그러나 이런 시대를 기다리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께서 자신을 지정하셨던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능한 한 더 넓게 확산시키기 위한, 너무나도 큰 열정 안에서 자신을 유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활동 안에서 세상에서 제한적으로 신적 규정에 연결되었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제시된 경계선은 넘어갈 수가 없었다.(*intra fines tamen, a patre constitutos*)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과정을 단순하게 수용하셨다.⁶²⁾

아버지께서는 그의 복음을 한꺼번에 모든 인류에게,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하신 순서에 따라 베푸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이다.(*non subito, neque pariter omnibus, sed suo ordine*)⁶³⁾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사도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활동적으로 전세계에 들어갈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는 이런 사실을 아시고, 그 후에 잠정적으로 행동하셨다. 옛 계약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준비는 이 때 비로소 마감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사실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의 경계선 안에서 제한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역시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미래를 내다 보셨으며, 이미 이런 정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될,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⁶⁴⁾

만약 옛 은혜 계약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준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처의 사상을 개괄할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부처는 첫 약속과 아브라함의 형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직 고양(승귀)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처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사상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

62) E(1530), Matth. fol. 137b; E(1536), 351.

63) E(1530), Matth. fol. 127b, cf. 135b; E(1536), 324, 345.

64) Rom.(1536), fol. 294b.

킨다. 그것이 곧 ‘여호와의 나라’이다.⁶⁵⁾ 선교의 방향 안에 있는 부처의 정
신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III. 결 론


‘종교개혁’과 현대 ‘선교’ 개념에 대해 간단히 정의함으로부터, 우리는
본고를 시작했다. 우리가 본고에서 의도하는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교회
가 이룩한 반종교개혁과 뮌처 등의 좌경화 종교개혁과 차별화에서 발전한
루터를 시발점으로 하는 츠빙글리, 부처, 갈뱅 등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주도된 종교개혁 운동이었다. 우리가 선택한 현대 선교에 대한 정의는 복
음 전도를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관점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에큐메니
칼 관점을 통합한 균형 잡힌 성경적 선교 개념이었다.

종교개혁의 선교 사상과 선교 활동을 중심으로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논쟁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루터는 물론 갈뱅에게 나타난 선교 사상과 활
동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더구나 개혁교회 최초
의 선교의 요람과 근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처의 선교 사상과 활동은 다
른 종교개혁자들의 선교관을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도 매
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옛 계약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 개념을 중심으로 부처의 선교 사상이
그의 대표적 성경 주석을 중심으로 고찰되었다. 부처에게서 구속사적인 큰
틀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사상이 강하게 발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
여, 타락한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큰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계셨고, 청사진대로 실천하고 계신다.

65) Ps., 146v.: “Jehovae est regnum.”

하나님의 은혜 계약 속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은 믿음의 아버지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계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선택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다. 이미 구약 시대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이방인들이 제한적으로 참여하였지만, 그 폭은 점점 더 넓어져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도들에 의해서 전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미리 보셨을지라도, 그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주신 경계선 안에서 활동하셨다. 부처는 아브라함의 참 씨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될 하나님 나라를 성경 주석을 토대로 끊임없이 선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부처의 가슴 속에는 선교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 사상이 큰 소리로 고동치고 있다. 

참고 문헌

- 김영동. 『교회를 살리는 선교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 김성현. “종교개혁 운동에 나타난 선교와 부흥”.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 연구원(편). 『2007 국제선교학술대회: 주제: 종교개혁과 선교』 (팸플릿, 2007. 9. 17-19), 39-60.
- 변창욱. “종교개혁과 부흥”. 장로회신학대학교 연구지원처(편). 『2007년도 제5회 종교개혁기념 학술강좌, 주제: 개혁교회의 부흥』 (팸플릿, 2007. 10. 25), 33-51.
- 세계선교연구회(엮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광순 박사 회갑기념 문집』. 서울: 미션아카데미, 2006.
- 세계선교연구회(엮음). 『복음과 선교: 이광순 박사 회갑기념 문집』. 서울: 미션아카데미, 2006.
- 서정운 명예총장 은퇴기념 출판위원회(편).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서정운 명예총장 은퇴기념 출판위원회(편). 『하나님 나라와 선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최정만. 『갈뎡의 선교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한국일. 『세계를 품는 선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New York: Orbis Books, 1991.
- Bosch, David J. *Witness to the World*. 전재옥 옮김. 『세계를 향한 증거: 선교의 신학적 이해』.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3.
- Van den Bosch, J.W. “Martinus Bucer en de zending.” *Gereformeerd Theologisch Tijdschrift* Jr. 32-33 (May 1931-April 1932), pp. 492-514, 544-68.
- Elert, Werner. *The Structure of Lutheranism, vol. 1: The Theology and Philosophy of Life of Lutheranism Especially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trans. Walter A. Hansen.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2.

- Holsten, W. "Reformation und Mission." Archiv für Reformationgeschichte (Vol 44 (1953), NR 1/2, S. 1-31.
- Josse, L.J. Reformatie en Zending: Bucer en Walaeus: vaders van reformatiorische zending. Goes: Oosterbaan & Le Cointre, 1988.
- Gensichen, D.H.W. "Really Were Reformers Not Interested in Mission." *History's Lessons for Tomorrow's Missions*. Geneva: WSCF, 1960.
- Müller, J. Martin Bucers Hermeneutik. Heidelberg: Gutersloher Verlaghaus Gerd Mohn, 1965.
- Pachuaui, Lalsangkima.(Ed.) *Ecumenical Missiology: Contemporary Trends, Issues and Themes*. Bangalore: The United Theological College, National Printing Press, 2002.
- Stott, John R.W.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서정운 역. 『현대의 기독교 선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 Warneck, Gustav. *Outline of a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from the Reformation to the Present Time: A Contribution to Modern Church History*. trans. from the 7th German ed. by George Robson.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01.

■ Abstract ■


Martin Bucer's Reformation and Mission: Centered on Thought on the Kingdom of God

Yoon Bae Choi

This Paper is the study of Martin Bucer's thought on mission centered on the Kingdom of God according to his commentaries. Bucer's thought on mission could be named the cradle of mission of Protestantism. He should be called a man of mission. Because his thought was always focused on mission.

We discuss about Bucer's thought on mission centered on the Kingdom of God according to his commentaries. His theological, literary and practical-ecclesiastical activities have from the beginning till the end of his life been conditioned by the reality of the Kingship of Christ or the Kingship of God.

Yoon Bae Choi graduated from Aviation College of Korea(B.E.), Yonsei University(M.E.),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M.Div., Th.M.), Reformed Theological University in the Netherlands in Kampen(Drs.), and Christian Reformed Theological University in the Netherlands in Apeldoorn(Dr. theol.). He is presently an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at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Bucer(1491-1551) sketches an image of the Kingdom of Christ, that encompasses the centuries. He places it within the broad of the history of salvation, that makes an appeal to the individual, but which also claims the whole of society, the whole church in all its relationships. His vision about the Kingdom of Christ, that encompasses the centuries has remained unchanged. It has deepened but not changed. 

Key Words

Martin Bucer, Reformation, mission, the Kingdom of God, History of Salvation, universal, heathen